

# 肺癰에 對한 文獻的 考察

羅東圭 · 金炳卓\*

## I. 緒 論

肺癰은 肺內에 膿瘍을 形成하여 發熱, 咳嗽, 胸痛, 量이 많고 腥臭가 있는 咯痰, 咳吐膿血을 發하는 疾患으로 邪熱이 肺를 侵犯하여 안에 쌓여 解消되지 않고 肺絡에 壅滯되어 血敗肉腐하여 化膿하여 癰을 形成하는 것이다<sup>1)</sup>.

肺癰의 病名은 張<sup>2)</sup>의 《金匱要略》에서 처음으로 보이는데 肺癰의 病因, 症狀, 治方에 대하여 比較的 詳細하게 言及하였고 “風中於衛 呼氣不入 風傷皮毛 熱過於榮 吸而不出 熱傷血脈 血爲凝滯 畜結癰膿”이라하여 肺癰의 病理를 風熱傷肺로 熱壅血瘀하여 發하는 것으로 보았다. 巢<sup>3)</sup>는 “肺癰者 由風寒傷於肺 其氣結聚所成也. 肺主氣 候皮毛 勞傷血氣 腠理則開而受風寒 其氣虛者 寒乘虛傷肺 寒搏於血 蘊結成癰 熱又加之 積熱不散 血敗爲膿”이라 하여 正虛하여 邪氣에 感受됨을 強調하였고 病의 初期에는 風寒을 感受하여 發하더라도 化膿成癰하는 것은 火熱한 邪氣가 흩어지지 않는 것과 密接한 關聯이 있음을 말하였다. 孫<sup>4)</sup>의 《千金要方》에는 清熱化痰, 逐瘀排膿하는 葶藶湯이 처음으로 記載되어 있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肺癰治療에 多用되고 있으며 王<sup>5)</sup>은 《金匱要略》의 桔梗湯을 발전시켜 肺癰膿已成하고 오랫동안 낫지 않으며 氣血이 虛弱할 때 使用하였다. 陳<sup>6)</sup>은 初期에는 解散風邪 或實表清肺하고, 이어서 滋陰養肺 或降火抑陰하고, 膿成하면 平肺排膿하고, 最後에는 補肺健脾해야 한다고 하여 病期에 따른 治療法을 提示하였다.

肺癰을 西洋醫學의으로 볼 때 가장 類似한 疾患은 肺膿瘍이며, 化膿性 肺炎, 氣管支擴張症, 氣管

支囊腫, 空洞性 肺結核 등도 肺癰의 範疇에 該當한다<sup>1,7)</sup>. 西洋醫學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疏忽하게 여겨지기 쉬운 化膿性肺疾患에 대한 韓方治療의 特徵을 理解하고자 歷代 文獻을 통하여 考察한 結果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 II. 本論

### 1. 金匱要略<sup>2)</sup>

○ 風中於衛 呼氣不入 風傷皮毛 熱過於榮 吸而不出 熱傷血脈 血爲凝滯 畜結癰膿

○ 口中辟辟燥 欬即胸中 隱隱痛 脈反滑數 此爲肺癰

○ 咳而胸滿 振寒 脈數 咽乾不渴 時出濁唾腥臭 久久吐膿如米粥者 爲肺癰

○ 寸口脈微而數 微則爲風 數則爲熱 微則汗出 數則惡寒 風中於衛 呼氣不入 熱過於營 吸而不出 風傷皮毛 熱傷血脈 風舍於肺 其人則咳 口乾喘滿 咽燥不渴 多唾濁沫 時時振寒 熱之所過 血爲之凝滯 畜結癰膿 吐如米粥 始萌可救 膿成則死

○ 肺癰 喘不得臥 葶藶大棗瀉肺湯主之

○ 肺癰胸脹滿 一身面目浮腫 鼻塞涕出 不聞香臭酸辛 咳逆上氣 喘鳴迫塞 葶藶大棗瀉肺湯主之

### 2. 難經譯釋<sup>8)</sup>

肺之積 名曰息賁 在右脇下 覆大如杯 久不已 令人洒淅寒熱喘咳 發肺癰

### 3. 諸病源候論<sup>3)</sup>

風寒傷于肺 其氣結聚所成也. 肺主氣 候皮毛 勞傷血氣 腠理則開而受風寒 其氣虛者 寒乘虛傷肺 寒搏於血 蘊結成癰 熱又加之 積熱不散 血敗爲膿

其人欬 胸內滿 隱隱痛而戰寒 診其肺部 脈緊爲肺癰 喘而胸滿 寸口脈數而實 咽乾 口內辟辟 燥不渴 時時出獨唾腥臭 久久吐膿 如粳米粥者 難治也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肺系內科學教室

膿而 嘔者 不順治 其嘔膿止自愈

4. 千金要方<sup>4)</sup>

風傷皮毛 熱傷血脈 血爲凝滯

咳唾膿血 其脈 數實者 屬肺 口中辟辟 燥咳即 胸中 隱隱痛 脈反滑數 此爲肺癰

5. 外臺秘要<sup>5)</sup>

○ 病欬唾 其脈數 實者屬肺癰. 虛者屬肺痿. 欬而口中自有津液 舌上胎滑 此爲浮寒 非肺癰也

○ 若口中辟辟燥 欬則胸中隱隱痛 脈反滑數 此爲肺癰也

○ 問曰病者欬逆 師脈之 何以知此爲肺癰. 當有膿血 吐之則死 後絡吐膿死 其脈何類 何以別之

○ 師曰 寸口脈微而數 微則爲風 數則爲熱 微則汗出 數則惡寒 風中於衛呼氣不入 熱過於營 吸而不出 風傷皮毛 熱傷血脈 風邪於肺 其人則欬 口乾喘滿 咽燥不渴 唾而濁沫 時時振寒 熱之所過 血爲凝滯 蓄結癰膿吐如米粥始萌可救 膿已成則難治 寸口脈數跌陽 脈緊寒熱相搏 故振寒而欬跌陽 脈浮緩胃氣如經 此爲肺癰

○ 肺癰 其脈數 欬唾設膿未成 其脈自緊數緊去但數 膿爲已成也

○ 欬胸中滿而振寒 脈數咽乾 不渴時出 濁唾腥臭 久久吐膿如 粳米粥

○ 欬有 微熱 煩滿 胸心甲錯

○ 喘不得臥 胸脇脹滿 一身面目 浮腫 鼻塞 清涕出 不聞香臭 酸辛 欬逆上氣 喘鳴迫塞

6. 脈因證治<sup>9)</sup>

○ 脈：脈數而實或滑 欬則胸中隱痛 爲肺癰 脈緊而數 膿爲未成 緊去但數 膿爲已成

○ 因：肺癰 乃風傷於衛 熱過於營 血爲凝滯 蓄結成癰

○ 證：肺癰病 欬逆上氣 濁吐出如粥 膿血 胸中隱痛 又欬膿血口燥 或喘滿不渴 唾沫腥臭 時時振寒 寸口脈數而實 按之滑

○ 治：法宜補氣血 瀉火散氣 初覺 可清熱拔毒 已潰 則拔毒補氣 用分經絡氣血多少 可補可驅 毒如少陽分 少血多氣 宜補

7. 丹溪心法<sup>10)</sup>

口中 辟辟 燥欬即 胸中 隱隱痛 脈反滑數或數實 咳嗽 吐膿血 咽乾 多渴 大小便赤澀

8. 醫學正傳<sup>11)</sup>

○ 丹溪：肺癰先須發表

○ <千金方>曰：病咳唾膿血，其脈數實，或口中咳，胸中隱隱痛，脈反滑數者，爲肺癰。其脈緊數，爲膿未成，緊去而但數者，膿已成也

○ <要略>治肺癰，先以小青龍湯一貼，以解表之風寒邪氣，然後以葶藶大棗瀉肺湯，桔梗湯，葦葉湯隨證用之，以取膿血，此治腫瘍之例也。終以葦宙獨行方 以補里之陰氣，此治潰瘍之例也

9. 外科正宗<sup>6)</sup>

○ 肺癰者 金受火刑之證也

○ 初起 脈浮虛細 身體不熱 咳嗽有痰 呼吸調者 順

○ 已成 脈浮微數 咳吐膿痰 形色鮮明 語聲 清即者吉

○ 潰後 咯吐膿痰 間吐鮮血時 發時止 飲食知味者順

○ 吐膿 漸漸稀少 胸脇不痛 面色微微帶黃 便調多穢

○ 初起 脈洪弦數 身熱多寒 胸疼氣喘 面紅 多汗損壽

○ 已成 咯吐膿痰 氣味 腥臭 黃痰如 膠粘固 唇反終亡

○ 咯吐再兼 白血 氣急 多煩 指甲紫而帝灣 終歸冥路

○ 手掌皮如 枯樹而絕觀紅 咽痛音如 鴨聲鼻掀終死

○ 初起風寒相入，頭眩惡寒，咳嗽聲重者，宜解散風邪

○ 汗出惡風，咳嗽氣急，鼻塞項強，胸膈急痛，實表清肺

○ 日間多汗，喜復衣被，夜間發熱，多煩去被，滋陰養肺

○ 口乾喘滿，咽嗽而渴，咳嗽身熱，脈弦數者，降火抑陰

○ 胸滿喘急，咳吐膿痰，身熱氣粗，不得安臥，平肺排膿

○ 熱退身涼，脈來短澀，精神減少，自汗盜汗，補肺健脾

10. 醫學綱目<sup>12)</sup>

咳嗽膿血 其脈數實者 爲肺癰 若口中欬即胸中隱痛 脈反滑數 此肺癰也

肺癰者 由食啖辛熱炙博 或酣飲熱酒 燥熱傷肺所致

#### 11. 醫學入門<sup>13)</sup>

○ 原因：汗吐下後亡津液 腎虛火炎 厚味薰蒸

○ 症狀：惡風 咳嗽 鼻塞流涕 項強 不能轉側 皮膚不澤 胸脇脹滿 呼吸不利吐痰血腥穢

○ 虛極 呼吸息微 欠伸 溺頻 肺痿 肺癰 或成瘰

○ 肺主氣 虛則呼吸 少氣不足以息 小便頻數 或遺 虛甚 爲相火所乘則咳而見血 或爲勞瘵 肺癰 肺痿

○ 肺癰 因爲火益炎

○ 癰口乾燥 爲涎粘 膿成胸痛 或開竅 調和金水 胃脾痰

○ 肺癰 脈數而虛 口燥咽乾 胸脇隱痛 二便赤澁 咳唾膿血腥臭 置之水中則沈 桔梗湯主之, 如吐膿者 消膿飲, 咽痛者 甘桔湯, 便秘者 太乙膏爲丸

○ 消肺癰膿 以南星 補肺補脾 眞要訣

#### 12. 萬病回春<sup>14)</sup>

○ 寸口脈이 數하고 實한 것은 肺癰이다. 만약 脈이 微緊하고 數한 것이면 아직 膿이 없는 것이다. 만약 緊함이 甚하고 數한 것은 이미 膿이 있는 것이다. 또 脈이 短하고 濇한 것은 疔瘡로 낫는다. 浮하고 大한 것은 難治이다.

○ 肺癰의 증후는 口乾, 喘滿하고 咽燥하며 渴하다. 甚한 즉 四肢가 浮腫하고 膿血을 咳唾하며 혹은 腥臭가 나고 濁味가 있으며, 胸中이 隱隱하게 微痛하는 것은 肺癰이다. 무릇 肺癰은 마땅히 咳嗽, 短氣, 胸滿하고 때로 膿血을 唾하되 오래도록 粳米粥과 같은 것은 難治다. 만약 膿을 吐하되 그치지 않는 것이면 역시 高칠수가 없다. 嘔하되 膿이 疔瘡로 그치는 것은 疔瘡로 낫는다. 환자의 얼굴은 마땅히 白色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赤色인 것은 火가 金을 剋한 것이다. 高칠수가 없다.

○ 肺癰은 咳唾함에 膿血이 있는 것이다.

○ 桔梗湯：肺癰으로 膿血을 咳唾하고 咽乾, 多渴하며 大小便이 不利하는 것을 다스린다.

#### 13. 六科準繩<sup>15)</sup>

○ 原因：勞傷氣血 腠理不蜜 外邪 所乘 內感於

肺 入房過度 腎水虧損 虛火上炎 醇酒炙博辛辣厚味 薰蒸於肺 咳唾痰涎 汗下過度 重亡津液 所致也

○ 症狀：口中欬即 胸中隱痛 脈反滑數 此 肺癰也 咳口乾 喘滿 咽燥不渴 多吐濁沫 時時振寒 惡風 咳嗽鼻塞 項強 胸脇脹滿 呼吸不利 咽燥作渴 甚則 四肢微腫 咳唾膿血

#### 14. 醫門法律<sup>16)</sup>

○ 原因：五臟 蘊崇之火 與胃中停蓄之熱 上乘於肺 肺受火熱 薰灼卽血爲 之凝血凝卽 痰爲之囊 遂成小癰

○ 症狀：欬角胸痛 振寒咽乾 不渴時出 濁唾腥臭 久久吐膿如米粥

○ 欬有微熱 煩滿 胸中甲錯

○ 胸滿脹 一身面目浮腫 鼻塞鼻涕出 不聞香

○ 鼻酸辛欬逆 上氣 咳喘 迫塞

○ 此治肺癰吃緊之方也 肺中生癰 不瀉其肺 更欲何待 然日久癰膿已成 瀉之無益 日久肺氣已索 瀉之轉傷 惟血結而膿未成 當亟以瀉肺之法奪之 亦必其人表證盡入裏 因勢利導 乃可爲功

○ 凡屬肺痿肺癰之咳 誤作虛勞 妄補陰血 轉滯其痰 因致其人不救者 醫之罪也

#### 15. 醫宗金鑑<sup>17)</sup>

○ 原因：肺藏蓄熱 復傷風邪 鬱久成癰

○ 症狀：胸中府穴 隱隱疼痛 振寒脈數 狀類傷寒 咽燥不渴 咳而喘滿 唾稠粘黃痰 兼臭穢膿血也

#### 16. 石室秘錄<sup>18)</sup>

毒結於肺葉之下 吐痰卽 痛欲死 手按痛處 亦痛欲死 此等肺癰

#### 17. 辨證奇門<sup>19)</sup>

○ 原因：肺熱之成癰 肺氣之虛而後 火留於肺 膏梁厚味 燔熬烹炙 酣飲則 肺經火識也

○ 症狀：胸膈之間作痛 咳嗽之時 更加 痛甚 手按痛處 尤增氣急 胸膈作痛 咽喉之門 先聞 腥臭之氣 隨吐膿血 此已破矣 難於治 久嗽之後 肺管損傷 皮膚 黃瘦 咽啞雌啞自汗 盜汗 眠臥不得 嘔吐稠痰 腥臭難聞 而毛悴色焦 咽乾 舌燥 吐痰吐血 喘急膈痛 不能安臥

#### 18. 醫學心悟<sup>20)</sup>

口中咳 胸中 隱隱而痛 吐痰腥臭者 肺癰也

#### 19. 張氏醫通<sup>21)</sup>

盖由感受風寒 未經發越 停留肺中 蘊發為熱

20. 徐靈胎醫書全書<sup>22)</sup>

○葦莖湯：治欬有微熱 煩滿胸中甲錯 是為肺癰

○桔梗白散：治欬而胸滿振寒 脈數咽乾不渴 時出濁唾 腥臭久久 吐膿如米粥者 為肺癰

21. 證治彙補<sup>23)</sup>

○久咳不已 濁吐腥臭 咳則胸中隱隱痛。口中辟辟燥 脈實滑數 大小便澀數 振寒吐沫 右脇拒按 為肺癰之病

○因風寒內鬱 痰火上湊 邪氣結聚 蘊蓄成癰

○若風邪內結者 小青龍湯。火邪內灼者 二冬湯。痰火鬱結者 葶藶大棗瀉肺湯。潰後收斂瘡口 用團參飲子

○若入風者 不治。面赤脈浮大者 亦不治 若覺胸背有竅。口中所咳膿血 與竅相應而出者 當大補氣血 佐以排膿之品

22. 類證治裁<sup>24)</sup>

肺癰者 咽乾吐膿 因風熱客肺 蘊毒成癰 始則惡寒 毛聳 喉間燥欬 胸前隱痛 痰膿腥臭 按右脇必痛 著左坐則喘 脈滑數有力者是也

23. 實用中醫內科學<sup>7)</sup>

○原因 -○邪熱犯肺 蘊結不解

○正氣虛弱 衛外不固

○素有 痰熱蘊肺

○嗜酒太過 恣食肥甘等 以致濕熱內傷

等

○風熱 邪氣外襲衛表 內壅肺氣

○少數 風寒 襲肺 未能皮時表散 鬱而

化熱

○症狀：

初期：惡寒發熱 咳嗽 胸痛 咳則痛甚 呼吸不利 咯白色粘痰 痰量日 漸增多 舌苔薄黃 脈浮數而滑

成癰期：狀熱不退 咳嗽氣急 咳吐 黃稠膿痰 氣味腥臭 胸脇疼痛 轉側不利 煩燥不安 口燥咽乾 舌質紅 苔黃膩 脈滑數或 洪數

潰膿期：咳吐大量膿痰 或如米粥 或痰血相兼 腥臭異常 胸中煩滿而痛 身熱面赤 口渴喜飲 舌質紅 苔黃膩 脈滑數

恢復期：身熱漸退 咳嗽減輕 膿痰白漸減少 或有胸脇隱痛 短氣 自汗 盜汗 心煩 口燥 咽乾 舌質

紅 苔黃脈細數

24. 東醫寶鑑<sup>25)</sup>

○原因：風寒之氣 內舍於肺

○症狀：喘而 兩脇滿 吐膿如糯米粥 咽燥 振寒 咳唾膿血 胸滿隱痛

○中府 隱隱而痛者 肺疽，上肉微起者 肺癰也

○肺之癰 喘而兩脇滿 肺癰吐膿如糯米粥 咽燥振寒

○振寒發熱 寸脈滑數 咳唾膿血 其人飲食起居如故 此為癰腫 膿在胸中為肺癰 其脈數為膿未成 緊去但數為膿已成

○肺癰吐膿後 其脈短而澀者自痊 浮大者難治 其面色白而反赤者 此火之克金不可治

○肺癰 當咳喘短氣胸滿 時唾膿血 久久如糯米粥者難治 其嘔膿而自止者自愈

○始崩可救 膿成多死

○肺癰 乃風寒之氣 內舍於肺 而作先煩發表 宜參蘇飲

○肺癰 咳而胸膈隱痛 時出濁唾腥臭 實者先投參蘇飲四貼 虛者先投小青龍湯四貼

25. 濟衆新編<sup>26)</sup>

○肺癰 中府隱隱痛 上肉微起 脚滿喘咳唾膿寒熱 能食實者參蘇飲 虛者小青龍湯

○肺積在右脇名 息賁 咳喘肺癰

26. 韓方外科<sup>27)</sup>

○原因：平素飲酒 過度 刺戟性 飲食物過度 攝取 肺內熱 蓄積 風邪感觸 風熱鬱結 傷寒 不表散 時日經過化熱 先天的 痰熱 體質 生飲食物 嗜好 生痰 痰積於肺 生癰

○發生部位：第2肋間 前胸壁의 外側 上端正中 에서 外方6寸 中府穴에서 發生

○症狀：初期 中府穴 隱隱 疼痛 戰慄 類似傷寒 咽喉 燥無渴 咳喘胸痛

27. 東醫肺系內科學<sup>28)</sup>

○肺癰證은 胸部에 膿瘍이 생겨서 膿血을 함유 한 침을 뱉어내는 症狀을 말하며 臨床上 咳吐膿血 하고 氣味腥臭를 主要症狀으로 하는 疾患이다.

○中府穴 隱隱 疼痛하면 肺疽이고 肉微起한 것 은 肺癰이다.

○肺癰은 喘而脇滿하고 咳而胸中隱痛하며 糯米

粥같은 膿을 吐하고 時出濁唾하며 咽燥腥臭하고 二便赤澁하며 振寒發熱하고 寸脈滑數한데, 其脈이 緊數하면 膿未成이고 緊去但數하면 膿已成인 것이다.

○ 定義 : 口中이 辟辟하며 燥咳를 發하고 咳則 胸中(中府穴) 隱隱痛하고 咳吐膿血 腥臭하면서 脈은 오히려 滑數한 것을 말한다.

○ 原因

① 外感 - 外感風熱, 外感風寒

② 內外合邪 - 肺癰의 發生과 身體에 內在된 素因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正氣虛弱 혹은 痰熱內盛 혹은 嗜酒不節 過食辛熱厚味 함으로써 濕熱이 內蘊하면 위로 薰蒸하여 肺에 이르게끔 되는데 이런 조건에서 風熱에 外感되면 內外合邪하여 蓄膿成癰하게 된다.

③ 內因 - 五臟에 內蘊된 火氣와 胃中에 停留된 痰이 위로 肺를 薰蒸하면 肺가 그熱을 받아 熏灼하기 때문에 血은 凝滯되고 痰은 膿으로 化하여 肺癰을 形成하게 된다.

○ 表證期 - 風熱之邪에 먼저 肺衛가 損傷을 받거나 혹은 痰熱이 狹하여 清淨機能이 상실된 경우로 病症은 비교적 輕하다. - 惡寒發熱 汗出 咳嗽 吐少量粘痰 胸痛咳時加重 呼吸不利 口乾鼻燥 舌苔薄黃 脈浮數

○ 膿의 釀成期 - 高熱汗出 時時振寒 胸悶 胸痛 咳嗽氣急 吐膿性痰 有腥臭味 煩燥不安 舌苔黃膩 脈滑數

○ 潰膿期 - 病勢가 계속 발전되어 血脈이 血毒에 의하여 損傷되어 鬱結成癰된 後에 潰膿되는 것으로 病症은 비교적 심하다.

○ 恢復期 - 正氣는 점점 회복되고 邪氣는 점점 없어지면서 病勢는 나날이 회복된다. 그러나 邪氣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咯痰과 熱은 오히려 남아있다.

○ 肺癰의 易治 難治症 - 肺癰證에서 吐膿後에 그脈이 短而澁하면 自瘥하고 그脈이 浮大하면 難治이다. 그 面色이 白而反赤하면 이것은 火極金이니 不可治이다.

28. 東醫內科學<sup>29)</sup>

○ 原因 : 外邪를 感受하였기 때문이다. 外感風

熱 或은 外感風寒이 化熱하여 肺에 蘊結되면 熱壅 血瘀 血脈損傷 鬱結成癰된다. 以外에도 體質과 飮食과도 定한 관계가 있다. 만일 痰熱이 平素에 盛하고 嗜酒不節하며 辛熱飮食物을 過食하여 濕熱蘊結을 일으키게 되며, 만일 風熱을 復感하면 邪氣가 內外에서 合쳐져 肺癰을 쉽게 形成하게 된다. 邪氣에 의해 發病되면 初起에는 風熱이 肺와 衛分에 있고 곧이어 蘊熱釀膿하여 邪熱蘊肺의 症候가 나타난다. 마지막에 破潰하면 大量의 膿痰이 排出된다. 만일 오래도록 지연되어 痊癒되지 않으면 氣血을 傷하여 邪盛正虛의 症候를 形成한다.

○ 症狀 : 發熱 寒戰 咳嗽 咯血 胸痛

○ 辨證分期

- 初期 : 風熱이 肺를 侵犯. 惡寒 寒戰 發熱 咳嗽 痰粘量少등 나타난다. 胸痛은 咳嗽할 때 특히 甚해지며 呼吸不利 舌苔薄黃 脈浮滑 數

- 成癰期 : 熱毒蘊肺하므로 氣血瘀結 癰脹膿. 壯熱, 振寒, 咳嗽氣急, 胸滿作通, 咽乾口燥, 汗出煩燥, 舌苔黃膩, 脈滑數 或은 紅數

- 潰膿期 : 肺癰潰破되면 症狀으로서 膿血을 咳吐하거나 或은 米粥같은 것을 咳吐하는데 腥臭異常하고 胸中에는 煩滿하고 痛하며, 甚하면 氣喘하여 平臥할수 없고, 身熱面赤, 煩渴, 喜飮, 舌苔黃膩 質紅, 脈滑數등이 있다.

- 恢復期 : 邪氣가 消退되면 正氣는 점차 회복되는데 症狀으로서 身熱漸退, 咳嗽輕減, 膿痰日少하며 神疲納呆는 症狀에 따라 점점 好轉되고, 苔薄質紅하며, 脈은 細하고 無力하다.

III. 總括 및 考察

肺癰은 肺內에 膿瘍을 形成하여 發熱, 咳嗽, 胸痛, 量이 많고 腥臭가 있는 咯痰, 咳吐膿血을 發하는 疾患으로 邪熱이 肺를 侵犯하여 안에 쌓여 解消되지 않고 肺絡에 壅滯되어 血敗肉腐하여 化膿하여 癰을 形成하는 것이다<sup>1)</sup>.

肺癰을 西洋醫學의으로 볼 때 가장 類似한 疾患은 肺膿瘍이며, 化膿性 肺炎, 氣管支擴張症, 氣管支囊腫, 空洞性 肺結核 등도 肺癰의 範疇에 該當

한다<sup>1,7)</sup>.

肺癰의 原因에 對하여 林<sup>24)</sup>은 “肺癰者 咽乾吐膿 因風熱客肺 蘊毒成癰”이라 하여 風熱病邪가 侵入하여 發한다고 보았고, 張<sup>21)</sup>은 “蓋由感受風寒 未經發越 停留肺中 蘊發爲熱”이라 하여 風寒의 侵入에 의한 것으로 보았는데 風寒의 邪氣도 肺에 侵入하여 蘊鬱化熱하여 肺를 熏灼하여 肺癰을 發하는 것으로 보았다. 樓<sup>12)</sup>는 “肺癰者 由食啖辛熱炙燻 或酣飲熱酒 燥熱傷肺所致”라고 하여 飲食不節로 痰熱이 肺를 熏灼하여 發한다고 보았고, 張<sup>21)</sup>은 “或挾濕熱痰涎垢膩 蒸淫肺竅 皆能致此”라 하고 喻<sup>16)</sup>는 “肺癰由五臟蘊崇之火 與胃中停蓄之熱 上乘于肺 肺受火熱熏灼 卽血爲之凝 血凝卽痰爲之麥 遂成小癰”이라 하여 肺臟에 오래된 宿痰이 있거나 他臟의 痰濁瘀血이 오래되어 肺를 侵犯하여 發한다고 보았다. 吳<sup>17)</sup>는 “此症係肺臟蘊熱 復傷風邪 鬱久成癰”이라 하여 원래 痰熱이 蘊肺한데 다시 外邪가 侵襲하여 發한다고 하였고 龔<sup>14)</sup>은 “蓋因調理失宜 勞傷血氣 風寒得以乘之 寒生熱 風亦生熱 壅積不散 遂成肺癰”이라 하여 疲勞過度하여 肺衛가 不固한데 外邪가 虛한 틈을 타서 侵入하여 發한다고 하였다. 즉 肺癰은 感受風寒風熱하거나 飲食不節, 素有宿痰으로 痰熱素盛하거나 內外合邪, 正虛邪乘으로 內外因의 相互作用으로 發한다고 보았다.

症狀에 대하여 張 등<sup>24)</sup>은 口中辟辟燥 欬卽胸中隱隱痛 脈反滑數 此爲肺癰이라 했고, 巢<sup>3)</sup>는 喘而胸滿 燥不渴 時時出濁唾腥臭라 했으며, 王 등<sup>5,16)</sup>은 脈數 咽乾 吐膿如粳米粥 煩滿胸心錯 喘不得臥 面目浮腫 欬逆上氣라 했고, 李<sup>13)</sup>는 惡風隱隱 而痛이라 했고, 吳<sup>17)</sup>는 中府穴 隱隱痛 咽燥不渴 咳而喘滿 唾稠粘黃痰이라 했고, 許<sup>25)</sup>는 喘而兩脚滿 吐膿如糯米粥 咽燥 振寒 咳唾膿血 胸滿隱痛이라 했다. 陳<sup>6)</sup>은 初期, 已成期, 潰後 등으로 分離하여 豫後를 判定하였는데, 呼吸調均하고 吐痰이 形色鮮明하고 間吐鮮血하고 飲食知味하면 大개 吉하고 身熱多汗 吐痰이 腥臭하고 指甲紫而 帶彎하고 鼻掀體消瘦하면 凶하다고 하였다. 《實用中醫內科學》<sup>7)</sup>에서는 初期에는 惡寒發熱 咯白色 粘痰增多하고 成癰期엔 壯熱不退하여 煩燥 咳吐 黃膿痰腥臭하고 潰膿期엔 口渴 咳吐大量膿痰 或 如米粥, 恢復期엔

身熱漸退 膿痰減少 盜汗 自汗이라 했다. 즉 肺癰의 主症狀은 咯吐粘稠黃濁腥臭痰, 胸痛, 口中乾燥, 喘不得臥 등이며 膿形成의 時期에 따라 症狀의 差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治法에 대하여 陳<sup>6)</sup>은 “初起風寒相入, 頭眩惡寒, 咳嗽聲重者, 宜解散風邪. 汗出惡風, 咳嗽氣急, 鼻塞項強, 胸膈急痛, 實表清肺. 日間多汗, 喜復衣被, 夜間發熱, 多煩去被, 滋陰養肺. 口乾喘滿, 咽嗽而渴, 咳嗽身熱, 脈弦數者, 降火抑陰. 胸滿喘急, 咳吐膿痰, 身熱氣粗, 不得安臥, 平肺排膿. 熱退身涼, 脈來短澀, 精神減少, 自汗盜汗, 補肺健脾”라 하여 初起에는 解散風邪 或實表清肺하고 이어서 滋陰養肺 或降火抑陰하고 膿成하면 平肺排膿하고 最後에는 補肺健脾해야 한다고 하여 後世의 病期에 따른 治療에 影響을 주었다. 喻<sup>16)</sup>는 “凡屬肺癰肺癰之咳 誤作虛勞 妄補陰血 轉滯其痰 因致其人不救者 醫之罪也”, “凡治肺癰病 以清肺熱 救肺氣 俾其肺葉不致焦腐 其生乃全. 故清一分肺熱 卽存一分肺氣”라 하여 妄補陰血하지 말아야 하며 清肺熱하는 것이 治法의 要點임을 말하였고 張<sup>21)</sup>도 “蓋由感受風寒 未經發越 停留肺中 蘊發爲熱 或挾濕熱痰涎垢膩 蒸淫肺竅 皆能致此 慎不可用溫補保肺藥 尤忌發汗傷其肺氣 往往不救”라 하여 溫補保肺하거나 發汗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肺癰의 初期에는 病邪가 表에 있으면 發散시켜야 하는데 發汗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病邪의 性質이 熱하므로 辛涼한 藥으로 解表消散해야지 辛溫한 藥으로 發汗解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 하겠다. 林<sup>24)</sup>은 “肺癰由熱蒸肺竅 至咳吐臭痰 胸脇刺痛 呼吸不利 治在利氣疏痰 降火排膿”라 하여 消痰降火排膿으로 治法을 要約하였고 《實用中醫內科學》<sup>7)</sup>에서는 初期에는 疎風散熱 宣肺化痰하고, 成癰期에는 清熱解毒 肅肺化痰하고, 潰膿期에는 清熱解毒 化痰排膿하고, 恢復期에는 益氣養陰 扶正托死해야 한다고 病理段階에 따라 細分하여 總括하였다.

肺癰은 感受風寒風熱, 飲食不節, 素有宿痰 痰熱素盛, 內外合邪, 正虛邪乘 등이 原因으로 特定한 疫癘之邪에 의하거나 傳染性을 갖는다고 言及된 部分은 없다. 그러나 病이 進行됨에 따라 症候를 보이는 位置가 初期에는 惡寒發熱의 症狀을 同伴

하는 肺衛에서 成癰期와 潰膿期에는 壯熱不退, 煩燥, 口渴, 咳吐 大量膿痰의 症狀을 보이는 陽明氣分으로 깊어지고, 恢復期에는 身熱漸退 膿痰減少 盜汗 自汗의 陰津損傷의 症狀을 보인다. 그리고 治療에 있어서도 각 段階에 따라 初期에는 疎風散熱 宣肺化痰하고, 成癰期에는 清熱解毒 肅肺化痰하고, 潰膿期에는 清熱解毒 化痰排膿하고, 恢復期에는 益氣養陰 扶正托死한다. 따라서 肺癰은 一定程度 溫熱病의 性質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肺癰에 대하여 獨立된 肺臟 病變으로서의 特殊性和 함께 溫熱病 辨證의 觀點에서 病理變化를 把握한다면 診斷과 治療에 있어 正確性和 治療效率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 IV. 結論

1. 肺癰은 肺內에 膿瘍을 形成하는 疾患으로 肺膿瘍, 化膿性 肺炎, 氣管支擴張症, 氣管支囊腫, 空洞性 肺結核 등의 範疇에 該當한다.

2. 肺癰의 原因은 感受風寒風熱하거나 飲食不節, 素有宿痰으로 痰熱素盛하거나 內外合邪, 正虛邪乘으로 內外因의 相互作用으로 發한다.

3. 肺癰의 症狀은 初期에는 惡寒發熱 咯白色 粘痰增多하고, 成癰期에는 壯熱不退 煩燥 咳吐 黃膿痰腥臭하고, 潰膿期에는 口渴 咳吐大量膿痰 或如米粥하고, 恢復期에는 身熱漸退 膿痰減少 盜汗自汗한다.

4. 肺癰의 治法은 初期에는 疎風散熱 宣肺化痰하고, 成癰期에는 清熱解毒 肅肺化痰하고, 潰膿期에는 清熱解毒 化痰排膿하고, 恢復期에는 益氣養陰 扶正托死한다.

#### 參考文獻

1. 張伯臬 主編 : 中醫內科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83, 1988.  
2. 張機 :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177-211, 1989.

3. 巢元方 : 諸病源候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23, 1983.  
4. 孫思邈 :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309-315, 1982.  
5. 王壽 : 外臺秘要, 北京, 中國醫藥研究所, p.284, 1980.  
6. 陳實功 :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129-130, 1964.  
7. 方藥中外 : 實用中醫內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171-172, 622-637, 1986.  
8. 扁鵲 :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124, 1979.  
9. 朱震亨 : 脈因證治, 力行書局, pp.124-127, 1985.  
10. 朱震亨 : 丹溪心法, 서울, 杏林書院, p.123, 1965.  
11. 虞博 :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pp.307-308, 1986.  
12. 樓英 : 醫學綱目(上卷), 서울, 一中社, p.766, 1994.  
13. 李梴 : 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p.389, 1984.  
14. 龔延賢 : 萬病回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295-296, 1988.  
15. 王肯堂 : 六科準繩, 서울, 翰成社, pp.182-189, 1975.  
16. 喻昌 : 醫門法律, 서울, 東南出版社, pp.1125-1155, 1986.  
17. 吳謙 : 醫宗金鑑, 서울, 大星文化社, pp.522-535, 1983.  
18. 陳士擇 : 石室秘錄, 書苑堂, p.235, 1984.  
19. 錢鏡湖 : 辨證奇聞, 甘地出版社, pp.464-467, 1988.  
20. 程國彭 : 醫學心悟, 文光圖書有限公司, pp.226-227, 1988.  
21. 張璐 : 張氏醫通, 서울, 一中社, p.252, 1991.  
22. 徐靈胎 : 徐靈胎醫書全書, 五州出版社, p.160, 1981.  
23. 李用粹 : 證治彙補, 萬葉出版社, p.269, 1983.  
24. 林佩琴 : 類證治裁, 臺北, 旋風出版社, p.102, 1978.

25. 許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p.392-394,  
p.486, 1981.

26. 康命吉 : 濟衆新編, 서울, 杏林書院, p.182,  
1975.

27. 蔡炳允 : 韓方外科, 서울, 高文社, p.186,  
1988.

28. 李珩九 外 : 東醫肺系內科學, 서울, 民瑞出版  
社, pp.31-37, 1984.

29. 具本泓 外 : 東醫內科學, 서울, 書苑堂,  
p.265, 1985.